

[사회]

언어·수리·가·외국어·과탐 1등급 1,808명

수능 모의평가 분석...우려했던 '등급 공백' 없어

작년과 달리 등급만이 표시된 개인별 성적표는 29일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학교 또는 학원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언어와 수리 '가', 외국어, 과탐 1등급 0.06% = 평가원에 따르면 자연계 과목인 언어와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4과목) 1등급은 466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3과목) 1등급은 880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1등급은 1천187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1과목) 1등급은 1천48명 등으로 모두 합하면 3천581명에 이른다.

◇수능등급제 첫 적용 = 평가 결과 1등급은 언어 4.27%, 수리 '가' 4.69%, 수리 '나' 4.52%, 외국어 5.41%, 사회탐구 4.12~4.95%, 과학탐구 4.24~5.05%, 직업탐구 4.05~4.94%, 제2외국어/한문은 4.05~6.00% 등이다.

모든 과목이 목표치 4%를 약간 넘어섰고 외국어(5.41%)는 목표치보다 1.41%나 많았고 제2외국어 중 스페인어는 18만6천908명의 0.20%에 해당한다.

인문계 과목인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4과목) 1등급은 466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3과목) 1등급은 880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2과목) 1등급은 1천187명,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사회탐구(1과목) 1등급은 1천48명 등으로 모두 합하면 3천581명에 이른다.

◇수능등급제 첫 적용 = 평가 결과 1등급은 언어 4.27%, 수리 '가' 4.69%, 수리 '나' 4.52%, 외국어 5.41%, 사회탐구 4.12~4.95%, 과학탐구 4.24~5.05%, 직업탐구 4.05~4.94%, 제2외국어/한문은 4.05~6.00% 등이다.

모든 과목이 목표치 4%를 약간 넘어섰고 외국어(5.41%)는 목표치보다 1.41%나 많았고 제2외국어 중 스페인어는

1등급 비율이 6.00%에 이르렀다.

평가원 측은 "당초 우려했던 등급이 비현상(블랭크)은 없었음 뿐만 아니라 등급 비율 분포도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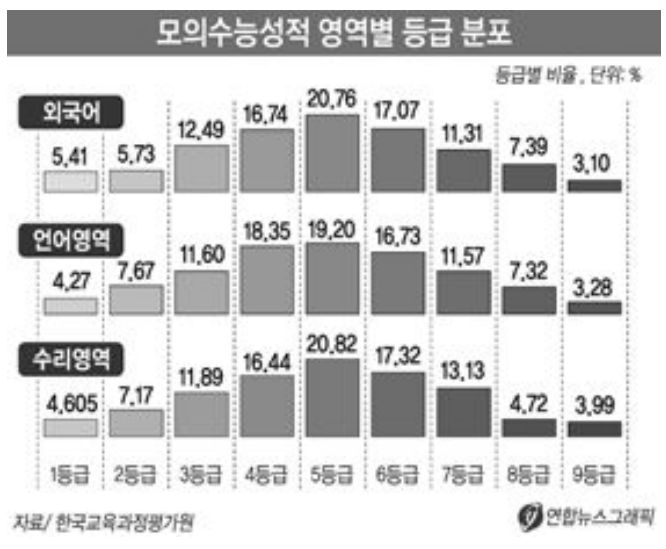
◇모의수능 응시자 현황 = 총 응시자는 57만5천618명으로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 영역 응시자는 각각 57만3천912명, 55만7천353명, 57만3천409명, 57만856명이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등 4개 영역 모두에 응시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의 96.1%인 55만3천199명이며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96.5%인 55만5천442명이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를 응시한 수험생의 대부분이 탐구 영역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당초 우려했던 등급 공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국어 등 일부 과목에선 등급 비율이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실시된 모의 수능 영역 및 과목별 등급(1~9등급)과 등급 조합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햇살 6월 29일 (음 5월 15일) ◆전국날씨

한때 비가 온 후 낮부터 개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23~28
전남	흐림	22~26
전북	흐림	21~24
충청	흐림	22~27
경상	흐림	23~29
강원	흐림	22~27
서울	흐림	22~27
경기	흐림	21~26
충북	흐림	22~29
충남	흐림	21~27
전남	흐림	22~28
전북	흐림	21~28
경남	흐림	22~28
제주	흐림	19~23

서울날씨: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날씨: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1:12, 썰물 < 06:48, 여수 밀물 < 08:06, 썰물 < 02:25

▲해돋이 05:20 ▲해질 19:51 ▲달뜨기 19:05 ▲달짐 03:34

날짜	30(토)	7/1(일)	2(월)	3(화)	4(수)	5(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1/30	21/26	22/27	21/28	21/28	22/28

‘교육부 내신 방침’ 대학들 어찌하나...

올해 입시부터 학생부 실적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전형 요강을 미리 발표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놓고 대학들이 고심 중이다.

고려대는 다음달 4일 교수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여 교육부 방침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대·고려대 등 골머리
수용 여부 내부 이견 ‘뿔뿔’

교육부 방침은 “26일 우선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26일 대학별 입학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등도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견지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나선 ‘내신갈등’과 관련해 대처 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성현 교수(통계학)는 “우선 교내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를 만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가 문제 제삼의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등도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한 대 처 방향을 논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윤한봉씨의 빈소에 28일 시민·민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의 추모행렬이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윤한봉씨 빈소 추모발길 줄이어

5·18 마지막 수배자 고(故) 윤한봉(한명숙 전 총리·순국) 전 경기도지사·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대선 주자들도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 주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과 지역 인사들이 보낸 100여개의 조화가 자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독일에 있는 한민족유럽연합(대표 이종현)은 “충격과 애도를 담랄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살아남은 부끄럼 때문에 광바다에서 잠을 자던 고(故) 윤한봉 동지, 우리 독일 동포들은 동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은 추모사를 보냈다.

한편, ‘민주사회’로 치러질 고인의 장례식에는 ‘광주·전남민족문화재단’(회장 박해동) 회원 50여 명이 쓴 50여개의 만장조와 함께 할 예정이다.

‘줄기세포’ 강성근 서울대 교수 퇴출 ‘늑대 복제’ 김민규 박사 신규임용 탈락

‘황우석 연구팀’의 핵심 인력으로 줄기세포 논문 작성을 주도했던 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결국 퇴출됐다.

서울대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의대가 추천한 강 교수의 재임용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회 참석 위원 25명 가운데 2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혀 안건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참석한 인사위원들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연구비 횡령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은 인물을 서울대 교수로 남겨둘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집필을 주도하고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모아 미국의 제럴드

새튼 교수와 교신을 하는 등 논문 작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대 인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민규 박사의 수의대 수의사학과 교수 신규 임용 안건 역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김 박사는 신규 임용 안건은 항 전 교수의 퇴출에 따라 교수직 결원이 생긴 데 따른 것으로, 김 박사 역시 항 전 교수의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김 박사는 신규 임용을 위해 개와 늑대 복제를 주제로 한 논문 7편을 심사 논문으로 제출했으나 심각한 오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난 늑대복제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한 점 등을 지적 받아 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들이 첫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9명 중 본원 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주요청 앞 영남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삼남점 옆 광우은행 4F)

광주점 “개원” (중앙가도48) ☎ 785-0990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2차월~5월 개강일: 7/2-8/31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2차월~5월 개강일: 7/2-8/31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제1회)시험 준비반(토일) 개강일: 7/7-8/1

● 모집대상
▶ 중·고졸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력서 제출인 분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액제 모집
▶ 수료후 100~80% 환급

● 접수
▶ 수강절차: 훈련생담→훈련수료생선생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월요일 19:00~21:00(토) 화요일 19:00~21:00(토)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 직업 전문 학교

동부경찰서 옆 ☎ 224-4560, 232-1088

7·9 공무원 대특강

행정직, 교무직, 관세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특전직, 소방직, 토목직, 건축직

시험일: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1명 9급 164명 예정
※전남교육행정직: 올 하반기 1000명 시험 예정
※전북차 9급행정직: 109명 9월 8일 시험

개강: 7월 2일 주야반교 (한자·영어·영어·수)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www.mdgoal.co.kr ☎ 222-4560

삼성빌딩 임대

충/별/안/내

★ 대충주차장 완비
★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완료시 30% 할인
★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 가치 높음
★ 1층 33평(의류, 약국, 서점 등)

7F 사무실
6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용
5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용
4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용
3F 146평(분할) 병·의원 사무실용
2F 남양알로에
1F LG텔레콤 1실 33평 | 골프클럽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김영면임·PMS학원

앞선 시작, 앞서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면임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1차 - 6월 25일 2차 - 7월 2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리대(서울) 17명 합격, 고대(전) 17명 합격, 서울대 10명 합격, 성공회 27명 합격, 중앙대 20명 합격, 단국대 20명 합격, 한양대 20명 합격, 한림대 20명 합격, 한신대 20명 합격, 한성대 20명 합격, 한양대 20명 합격, 한양대 20명 합격, 한양대 20명 합격, 한양대 20명 합격

www.kimyoung.co.kr ☎ 227-8088